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⑮ 무식한 행자가 깨달아 부처가 되다



▶ 한줄 요약
경문과 교리에 해박했고 오랜 동안 수행했던 신수를 제치고 일자무식 나무꾼이었던 행자 혜능이 육조가 되었다.

청정불성에 너와 내가 달리 있지 않다

오랑캐 나무꾼이 5조를 만나다

〈금강경〉을 듣고 부처가 되고자 마음을 낸 나무꾼 혜능은 한 달 동안 걸어서 동산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 만났다. 5조가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인데 무엇 하러 왔느냐?"

"저는 영남 신주 사람인데, 부처가 되고자 왔습니다."

"영남은 오랑캐가 사는 곳인데 어찌 부처가 되려 하느냐?"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는지요? 몸은 비록 오랑캐로 스님과 다르지만, 부처의 성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들은 5조는 좌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더 묻지 않고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내어 일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나무꾼 혜능은 오조사의 행자가 되어 방아 찧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대목은 〈돈황본 육조단경〉의 기록이다. 5조는 남방에서 한 나무꾼이 찾아오자 슬쩍 찔러 본 것이다. 그러자 혜능은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답한다. 중국 사람들은 예부터 동서남북 변경에 사는 사람을 오랑캐라 차별하였다. 혜능은 글자를 모르는 무식이자 장돌뱅이 나무꾼이었으니 차별과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부처가 되고자 출가하였으니 5조는 비범한 인물이 왔다는 것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5조 문하에 깨달음 게송 대결

혜능이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5조가 오조사의 1천여 수행자들에게 지시한다.

"세상 사람에게 생사가 큰일인데, 너희들은 종일 공양해서 다만 복만 구하고 생사고해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는구나! 스스로 잘 살펴 지혜가 있는 자는 각자 게송을 하나씩 지어 가져 오너라. 게송을 보고 깨달은 자가 있으면, 그를 6조로 삼겠노라."

5조의 분부를 들은 대중들은 이렇게 말한다. 신수 스님이 있으니 우리가 괜히 애써서 게송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가 교수사이고 뛰어나니 게송을 지어 인가 받아 6조가 되면 그에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대중들은 신수 스님을 믿고 아무도 게송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교수사 신수 스님의 고뇌에 찬 게송

교수사 신수(神秀, 606~706) 스님은 일찍 출가하여 불경과 유교 경전까지 통달하고 5조 문하에 선을 공부하러 와서 교수로 있었다. 그는 학식과 덕망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인물까지 좋아 대중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오조 대사가 깨달은 지혜로 게송을 지어 오라 했지만, 대중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깨치지 못했으니 게송을 지을 수가 없었다. 몇날 며칠을 고뇌하던 신수 스님은 마침내 대중이 아무도 보지 않는 야심한 밤에 조사당 회랑에 몰래 게송을 이렇게 써놓았다.



신수와 혜능이 게송 대결을 펼친 오조사 조사당 앞 회랑.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 먼지가 있지 않게 하라.

날이 밝자 회랑 벽에 쓰여진 게송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5조도 보았는데, 아직 깨달은 안목이 아니고, 신수가 쓴 것임을 직감하였다. 하지만, 5조는 이 게송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삼악도(三惡道)는 면할 것이니 대중에게 외우라 하였다. 그리고는 몰래 신수를 불러 회랑 벽의 게송을 썼는지 확인하고 깨달음의 문 앞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했으니 더 정진하여 깨친 지혜로 게송을 지어 오라 하셨다.

혜능 행자의 게송과 깨달음, 그리고 인가

이때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던 행자 혜능은 우연히 한 동자승이 게송 읊는 것을 들었다. 동자승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직접 조사당 회랑으로 가서 그 게송을 보았으나 문자를 몰랐으니 알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이에게 게송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들었다.

혜능이 들으니 〈금강경〉에는 "응당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난다"하는 무아(無我)와 무주(無住)를 깨달음이라 하는데, 이 게송은 몸과 마음을 나누어 있다고 보는 유아(有我)의 입장이라 깨달음의 게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 **5조의 깨달음 게송 대결서**
> **무아무주의 깨달음 드러내**
> **대중을위한 마음이 깨달음**

신수 스님의 게송에는 나도 있고 티끌과 먼지도 있다고 보아 부지런히 털고 닦는 수행을 말하는 것이지 무아를 깨달은 게송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혜능은 자기도 게송을 하나 지어 글 아는 이에게 부탁하여 쓰게 하니 이렇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끌이 있으리오.

이 게송을 보고 대중들은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5조는 이 게송을 보고 혜능이 깨달음에 가까워졌음을 알았으나 짐짓 대중에게는 이 또한 깨달은 게송이 아니라고 한다.

혜능, 〈금강경〉 듣고 6조가 되다

5조는 몰래 방앗간으로 가서 혜능에게 밤 삼경에 조사당으로 오라 하였다. 야밤에 혜능이 조사당에 가니 5조가 〈금강경〉을 읽어주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대목에 이르러 혜능이 확철대오하니 드디어 생사윤회를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 부처가 되었다. 5조는 마침내 혜능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6조로 부촉하며 증표로 달마대사의 가사와 발우를 전하였다. 그리고는 이 도량에 있으면 (무식한 행자가 깨달아 6조가 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대중이 너를 해할까 염려 되니 바로 남쪽으로 가서 전법하라며 양자강 나루터까지 배웅하였다.

6조는 혜능 아닌 신수라는 주장들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만나게 된다. 바로 문자도 모르는 행자 혜능이 어떻게 박식한 교수사 신수를 제치고 깨달아 6조가 되었단 말인가? 학문으로 볼 때 혜능 행자는 유치원생이고 신수는 대학 교수급이니 비교 불가다. 행자 혜능의 6조 부촉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당시 오조사에서도 그러했던 모양이다. 〈육조단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5조는 혜능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만나 깨우치고 인가한 뒤 야밤에 도주하다시피 절을 떠나게 한다. 이것은 모두 대중의 안목으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오랑캐 혜능의 6조 부촉은 지금 불교학계에서도 일부이나 "혜능 6조설은 허구이자 역사 날조"이며, "신수가 정통 6조"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종립대학의 교수나 박사학위 논문, 저서 등에서도 이런 주장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은 불교와 선에 입문하려는 초심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일부 학자의 이런 주장은 20세기 초, 돈황 막고굴에서 당나라 시대 〈육조단경(후일 돈황본이라 함)〉를 비롯하여 고문헌이 다수 발견되고 대만 학자 후스(胡適, 1891~1962)가 이 고문헌을 연구하여 "6조 혜능설은 조작"이며, "신수 6조설"을 주장하여 학계에 등장하였다. 일부 일본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지지하였고, 일본에 유학간 한국 학자(승)들도 이 견해를 받아들여 "〈육조단경〉도 신회가 창작한 픽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식한 나무꾼 출신 행자 혜능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6조가 될 수 있느냐?"하는 학문적인 의심과 "혜능의 제자 신회가 북방으로 가서 정치적 혼란기에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6조 신수를 폐기하고 혜능설을 조작한 뒤 신회 자신이 7조가 되는 역사 왜곡"을 하였으며, 돈황에서 발견된 고본 중에 〈신회어록〉과 〈육조단경〉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니 〈육조단경〉은 결국 신회가 날조한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다.

선은 말과 문자로는 알 수 없다

선종의 6조가 신수라는 주장은 선(禪)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조사들은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 한다. 선은 부처님의 깨친 마음이다. 초기경전인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고, 중도는 팔정도이고 무아, 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금강경〉에서는 무주라 하였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치려면 말이나 문자로 된 경전이나 어록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체험과 실천으로만 가능하다. 가령, 금강산을 본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과 글자로 금강산을 설명해주더라도 금강산을 본 것이 아니다. 자기가 금강산을 직접 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깨달음은 말과 문자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더라도 마음으로 체험하고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5조 문하에 신수 교수사가 아무리 경전에 해박하고 통달하였더라도 자기 마음이 그대로 본래 부처고, 중도, 무아, 무주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다. 반면에 방앗간 행자 혜능은 글자를 몰랐지만,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을 깨친 것이다. 교수사 신수는 수많은 불경을 보고 오랫동안 참선하여도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중도, 무아라는 존재원리를 몰랐기에 자기 밖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능은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홀어머님을 모시고 나무를 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일해 왔다. 글자를 알지 못했으니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며 살다가 〈금강경〉을 듣고 발심 출가하여 무아, 무주를 체험한 것이다. 문자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본래 마음을 깨치는 데 지름길이 되었다. 방앗간 행자가 되어서도 경전을 배우지 않고 오직 8개월 동안 대중을 위해 진심으로 방아 찧는 일만 한 것이 그대로 수행이 되었고, 깨달음의 길이었다.

〈불교인재원 교수〉



